

中国의 古代思想과 数와 建築

II

宋 攸 求

(宋攸求建築 대표)

工事を 할 때 목수들이 直角을 3 : 4 : 5 整数連比의 直角 3角形에서 구한다. 이것이 周易에서 誘導되는가 여부를 알아보자.

다시 周易 繫辭上傳을 引用하면,

「대연(大衍)의 수는 50이지만, 그 쓰는 것은 49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천지를 형상화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三才)를 형상화고, 이것을 4로 세어서 4시를 형상화고, 기수로 시초(蓍草)를 손가락에 끼워 윤(閏)을 형상한다.

5년이면 다시 윤달이 든다. 그러므로 다시 시초를 손가락에 끼운 뒤에 걸어놓는다...

위에서 49를 둘로 나누면 25와 24가 되어 25는 天 24는 地를 형상한다.

24는 $2 \times (3 + 4 + 5) = 24$ 인 고로 3, 4, 5로 三才를 형상한다.

25는 $12 + 13 = 25$ 인 고로 12를 4시 13을 閏으로 형상한다. 또 $25 = 5 \times 5$ 임으로 繫辭上傳의 해석대로 25는 5이다. 따라서 5년에 閏年이 든다.

이상과 같이 해석하는 것과 다른 해석도 있을 것이다.

또 $12 + 13 = 25$ 에서 25는 5임으로 5, 12, 13을 三才로 하고 24를 4시로 형상한다고 하면 5 : 12 : 13의 直角 3角形을 얻게 된다.

6 : 8 : 10은 3 : 4 : 5의 倍数임으로 말할 나 위도 없다.

7 : 24 : 25는 前号에서 설명한바 있다.

8 : 15 : 17은 다음과 같이 式을 만들어 보자.

$8 + 7 = 8 + 4 + 13 = 25$, $4 + 5 + 15 = 24$ 그러면 8 : 15 : 17과 13의 閏, 4시의 4, 5년의 5의 수가 전부 內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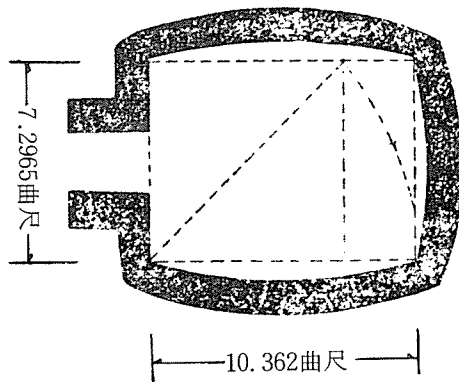
9 : 40 : 41은 大衍의 數 50에서 9를 減하면 41이고,

49에서 9를 減하면 40이 된다.

筆者가 말하는 Pythagoras定理의 整数解의 証明을 한 Diophantos의 idea가 周易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이상의 連比가 우리나라 古建築에 쓰여진 것을 모르고서는 참으로 古建築을 이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古建築에 나타나는 对角線展開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助王里 69号 甌檨墳의 平面

(그림 1)

(그림 1)은 助王里69号古墳의 平面이다. 正方形의 对角線을 展開하였다.

어느 경우든 直角을 形成하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바 整数連比의 直角 3角形을 써야 한다.

直角 3角形의 세변은 三才 즉 天, 地, 人을 형상한다고 하였다. 빗변이 天이요 밑변이 人인 것이다.

人과 天의 比를 택한 것이 소위 对角線展開法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施工上 또는 오랜 歲月이 흘러 다소의 差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값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古建築을 一律적으로 $1:\sqrt{2}$ 의 比로 判斷한다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尺度에서 人과 天의 比를 택하듯이 古代에서는 造形藝術에 意味를 부여한 것이며, 人間의 生에 대한 강한 執念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고 또 現代思想과 같다.

浮石寺 祖師堂의 경우 實測値는 短邊 13.20尺 長邊 30.70尺이다. 使用尺度가 唐尺이나 漢尺이나 하는 것은 크게 問題가 되지 않는다.

그 理內는 實測値의 倍數가 使用尺度이기 때문이다.

13.20尺과 30.70尺은 7을 初項으로 하고 25를 公差로 한 等差級數의 6項과 13項이다.

7과 25는 $7:24:25$ 整数連比에서 人과 天의 比가 되며 동시에 等差級數는 無限히 뻗어나갈 수 있는 數列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을때 祖師堂에 담긴 metaphor는 참으로 놀라기가 한이 없다.

端狹間의 9.90尺과 側面의 13.20尺은 $3:4$ 이다. 따라서 端狹間에 $3:4:5$ 에 의하여 直角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技巧가 우리나라 古建築에 숨겨져 있으며, 現代 특히 1970년대부터 일고 있는 意味論的(semantics)인 해석이 없이는 古建築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당시의 数学水準이 그렇게 높았는가 하는 疑問들을 품는다.

高麗代는 中國의 宋代이며, 이때는 이미 高等代數에서 나오는 二項定理에 의한 $(x+y)^n$ 의 展開에 따르는 係數, 다시 말하여 빠스칼(Blaise Pascal, 1623-62)의 삼각형이 四元玉鑑에 나타난다.

또 古代에 쓰였다는 周髀算徑은 남아있지를 않아 內容은 알길이 없으나, 이것을 이어 받은 九章算術은 紀元 1世紀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內容에는 無限이나 極限이라든가 하는 사상이 상당히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等比級數, 2차方程式, 自乘根, $\pi=3.1416$ 등 가히 그 水準을 짐작케 하는 內容들이 쓰여져 있다.

九 星 說

星, 辰, 日, 月, 四時, 歲를 일컫는 것인데 陰陽家는 이것으로 方位, 配偶 등 吉凶을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五星說은 陰宅術에 九星說은 陽宅術에 쓰이며 家相이라는 것은 이에서 비롯된다.

(표 1)은 이것을 종합한 것이고 건축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방위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天干地支와 복합되고 또 年月日에 따라 바뀐다.

(표 1)

		南					
	4	綠	9	紫	2	黑	
	木	宮	火	宮	土	宮	
	異	離	離	宮	坤	宮	
	3	碧	5	黃	7	赤	
	木	宮	土	宮	金	宮	
東	震	宮	中	宮	兌	宮	西
	8	白	1	白	6	白	
	土	宮	水	宮	金	宮	
	八	民	次	宮	乾	宮	
		北					

(표 1)은 元宮이라고 하고, 9개칸이 있기 때문에 구궁(九宮)이라고 하며, 구궁속에 九星을 자리잡게 한다. 근본은 数学에서 말하는 方陣이며, 前号에서 설명한 바 文王八卦에서 由来된 것이다.

이 方陣의 각 數를 하나 더 하면 9가지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단 10은 1로 還元한다.

(표 1,2)

1977年	1976年	1975年
4 9 2 3 5 7 8 1 6	5 1 3 4 6 8 9 2 7	6 2 4 5 7 9 1 3 8
1980年	1979年	1978年
1 6 8 9 2 4 5 7 3	2 7 9 1 3 5 6 8 4	3 8 1 2 4 6 7 9 5
1983年	1982年	1981年
7 3 5 6 8 1 2 4 9	8 4 6 7 9 2 3 5 1	9 5 7 8 1 3 4 6 2

해마다 정하여지는 것을 年神方位圖라고 한다. (표 1, 2) 위에 적은 것이 해당 年度를 표시한 것이고, 매년 나오는 民歷의 마지막 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매월 바뀌는 神方位圖는 음력 초하루의 상단에 기재되

며, 매일 바뀌는 것은 方陣의 중앙 즉 中宮의 한칸에만 기재된 것을 해당날의 란에 옮긴다.

가령 12월 초하루가 九紫면 方陣의 중앙이 九紫가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九星의 변화하는 것과 干支로서 年月日에 부여된 변화와 복합되어서 건축의 吉한 方位를 찾게 되는 것이다.

方位는 360도를 24등분 하였으므로 해당되는 方位는 15도씩 변화하게 된다.

검하여 각의 24등분은 古代에서는 이미 6각형의 작도 방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각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九星說이 근거가 되어 건축의 신축, 기존 건물의 방위에 따르는 吉凶 즉 家相, 宅地 選擇에 있어서의 方位, 이사할 곳의 方位 등의 選擇을 九星說에 따라 吉凶을 판단하고 정하게 된다.

한가지 예로서 四柱에 의한 吉한 곳의 選別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旺衰強弱表

水 癸壬	金 辛庚	土 己戊	火 丁丙	木 乙甲	干日生 支月生 節季		
					寅 卯	辰	
弱	最弱	弱	小強	最強	寅	春節生	立 春
弱	小強	強	小強	衰	卯	土旺季	立 夏 前
最弱	弱	最強	最強	弱	辰	夏節生	立 夏
最弱	小強	最強	衰	弱	巳	土旺季	立 秋 前
小強	最強	弱	弱	最弱	午	秋節生	立 秋
小強	小強	強	弱	最弱	未	土旺季	立 冬 前
最強	弱	最弱	最弱	小強	申	冬節生	立 冬
衰	小強	強	最弱	小強	酉	土旺季	立 春 前
					戌		
					亥		
					子		
					丑		

(표 2)는 生年月日에 따르는 강약표이다.

만일 1950년 8월 15일에 탄생한 사람이면 음력으로 庚寅年 甲申月 壬午日이 된다.

이날은 立秋에서 立冬까지 사이의 날이다. 표의 계절의 秋節生에 해당된다.

다음에 1950년은 萬歲歷을 보면 「年白五黃入中」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方陣의 중앙에 다시 말하여 元宮의 중앙에 5 또는 五黃이 들어 간다는 뜻이다.

다음에 (표 2)에서 最強, 強, 小強, 은 剋漏함이 吉하

고 弱, 衰, 最弱은 生助함이 吉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生助은 五行이 생하는 것, 말하자면 癸日生을 기준으로 하면 癸는 五行의 水에 해당한다. 따라서 金生水에서 金이 生이 되고 水가 助가 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生은 原因이 되고 助는 結果이다.

水에 대한 剋은 火 및 土이다. 동시에 水生木인 고로 漏는 木을 가르킴이다.

따라서 小強인 사람은 剋漏함이 吉하고로 8월 15일생의 사람은 五行이 水인 관계상 水에 剋漏하는 五行은 火 및 土와 木의 方向이 吉하다는 뜻이 된다.

1980년의 元宮은 (표 1, 2)와 같다.

따라서 四綠木, 三碧木 즉 西쪽과 西北쪽 그리고 九紫火, 五黃土 즉 東쪽 또는 東北쪽이 吉하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1950년생은 中宮이 五黃土인 고로 1980년의 年方位에는 東北쪽에 五黃土가 있으므로 그 방향을 擇하는 것이 吉하다는 것이다.

이상은 한가지 예이며, 이에는 수많은 해석이 결부되어 있다.

요컨대 筆者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古代思想은 人間萬事를 판단하는 것만 하더라도 모든 근원에는 수의 질서와 神祕性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극히 흥미로운 것은 現代哲學이 밟고 있는 과정과 비교할 때, 물론 근본적으로 다르기는 하나 數學的 方法論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 人間의 思考가 수천년을 지나 다시 소위 辨證法的 回歸의 과정을 밟는다는 데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現代哲學에서도 특히 論理的 實証主義를 표방하는 哲學은, 研究方法으로는 分析 즉 記号論理 및 數學的 方法을 사용하고, 研究對象으로는 科學 및 日常的 經驗과 言語를 對象으로 하여, 科學의 성격을 띤 科學的 哲學이라고 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비엔나 學團」(The Vienna Circle)의 한 사람인 카르납프(Carnap, 1891-1970)의 영구를 살펴 보면 數學에서서의 集合論을 의지하여 哲學的 用語 즉 「메타(Meta)」 言語의 驅使라든가 科學的 方法은 現代哲學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 것이 藝術論 또는 建築論의 確立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建築의 意味論的(semantics)의 해석은 그러한 영향의 하나이며, 우리의 慣習인 家相도 그러한 것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家相은 九宮, 八卦, 十二支, 二十四山圖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吉凶을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주의 生年月日과 같이 생각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가린다.

洪範九疇

周易의 思想은 政治에도 반영된다.

洪範九疇가 그것이며, 이의 九는 八卦에서는 乾의 단위의 수이다. 乾은 또 天을 뜻하기도 한다.

洪範이라 함은 天下를 다스리는 大法을 말하며, 目 또는 条目이 9개 있어서 九疇라 하였고, 思考形式이 周易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의 範과 疇가 합쳐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category의 述語를 만든 것이다.

中國의 史記에, 中國의 西北部에 위치하는 陝서성(陝西省)에서 일어난 周나라가, B.C. 11세기경 殷나라를 武王이 쳐부수고 華北地域을 통일하게 되었다.

그 후에 箕子를 방문하여 天道를 물으니 箕子가 洪範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

여기의 箕子는 殷의 箕子이고, 우리나라 箕子朝鮮의 箕子는 李亨求氏가 지적한 「고고학상으로 본 箕子 別支 鮮虞 中山國」이란 글에서는, 최근에 中共 考古學팀이 발견한 中山國 王陵의 유물과 鮮虞碑가 箕子朝鮮과 각각 관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유물과의 類似性이라든가 墓制는 물론 鮮虞碑에 나타난 鮮虞族이 殷의 箕子의 후예라고 밝혀져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箕子朝鮮이 中國大陸의 한 가운데인 河北省 중부에 실제했음을 확인하였다.

筆者는 周나라도 적어도 騎馬民族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陝서성(陝西省)이라는 地理的 與體도 그렇거니와, 匈奴는 史記에는 夏王朝의 一族으로서 夏后氏가 그들의 先祖이며, 夏王朝가 기율자 周王朝의 遠祖가 되는 公劉가 서융(西戎)의 풍속에 同化하고 지금의 陝西 栒邑 西에 邑落을 만들고 살다가 300여년후에 嬴狄(戎狄)의 공격을 받아 公劉의 九代 紂高父가 陝西省 岐山縣에 部族을 이끌고 옮겨서 周나라를 세운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西戎는 西쪽의 민족이며, 이것이 騎馬民族이고 遊牧民族이며 scythai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遊牧民族은 定住性이 희박함으로써 天文思想이 발달되어야 하는 必然性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남은 흔적이 周髀算經이 아니겠는가 하는 推理를 하여 본다.

周髀算經은 數學책이라기보다 天文에 관한 數學책으로 學者들은 보고 있다.

Pythagoras의 哲學과 周易과의 類似性도 騎馬民族의 機動性 때문에 東西의 文化가 쉽사리 융화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Hallstatt美術과 新羅의 美術의 類似性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하간 殷의 箕子는 周의 武王에게 洪範九疇를 말하

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五行

이것은 前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五事

모(貌), 言, 視, 聽, 思를 말하며, 禮節상 중요한 다섯가지를 말함이다.

3. 八政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여덟가지일로써,

1. 食, 貨, 祀

民生문제와 祭祀에 관한 것임.

2. 司空 司徒, 司寇 .

농지개관과 教育, 治安을 뜻하는 것임.

3. 賓, 師

外交와 國防을 말하는 것임

4. 五紀

歷數의 총칭으로써 歲, 日, 月, 星, 辰, 歷數를 말한 것임.

5. 皇極

임금이 세운 만민의 準則을 말한다.

6. 三德

正直, 剛克, 柔克을 말함이며, 극은 다스린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柔克은 柔로 剛을 다스리는 것을 말함.

7. 계의(稽疑)

모든 일을 의심하고 생각하여야 되니 雨(雨: 비울우), 雩(雩: 개일제) 즉 항상 가뭄과 장마를 생각하여 하늘을 살피고, 蒙(蒙: 어릴몽), 역(駢: 짝뽕죽죽할역) 즉 땅에서는 작물과 가축의 성장에 마음을 쏟으며, 克(克: 아음극 억누르극), 貞(貞: 곧을정), 悔(悔: 뉘우칠회) 즉 인간사에 있어서 항상 마음을 억누르고 곧게 가지며 뉘우침이 없도록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라는 뜻이다.

8. 庶徵

하늘에서 인간세상에 내리는 온갖 상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다. 즉 雨, 暘(陽: 해반짝날역), 暵(燠: 더울우), 寒, 風, 時를 살피라는 것이다.

9. 五福, 六極

五福은 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을 뜻함이며, 六極은 지극히 나쁜 일들을 즉 凶短折(凶短折), 질(疾), 憂, 貧, 惡弱을 뜻한다.

이상의 것을 圖解한 것이 洪範圖이며, 이것은 文王八卦圖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에서도 역시 數와 연관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이 이외에도 많은 것이 周易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數

로서는 5와 9에 대한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古代 Mesopotomia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5 : 12 : 13도 그러한 데에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 Sumer 文代의 廣範圍한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註 1 Hallstatt美術이라 함은, 紀元前 1200년경 Orient에 있어서 人類歷史에 劃期的인 한 時期를 마지하는 青銅器時代가 끝나고 初期鐵器時代가 시작되는데 그 영향을 받아 유럽에도 紀元前 900년에서 400년사이에 初期鐵器時代를 맞이한다.

따라서 그 영향이 강한 유물중에 Austria의 Hallstatt에서 發見된 것을 일컬어 Hallstatt美術이라고 한다.

그 이후의 것을 Lo Tène文化라고 하며, 이러한 것들을 古代 騎馬民族의 文化로서 代表的인 것의 하나로 보고 있는 Iran의 西部 Zagros山脈중의 Luristan地域에서 發見된 Luristan文化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그들 유물에는 新羅時代의 美術과 類似한 점이 많음으로 우리나라 역시 騎馬民族 또는 Scythai人들과의 連關性을 論하게 된 것이다.

註 2 Sumer族의 繁榮期는 紀元前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대하여 趙芝薰氏의 글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시베리아文化圈은 동양文明 最古의 原初의 기반을 형성한 一大文化圈이다.

이제 인류문화를 지역적으로 양분하여 東亞文化와 西歐文化로 나눈다면 이 문화권은 물론 동양문화권에 들 것이요, 또 種族, 言語 기타로 편이상 Turan文化와 Aryan文化로 나눈다면 이는 Turan文化의 一支派이다.

中央아세아 Turan平原에서 발상하여 알타이 지방을 요람으로 北東아세아에 이르러 시베리아를 중심하여 사방에 파급된 문화권이다. Turan民族이란 人類學에서 말하는 몽고인종, 언어학자가 말하는 附着語族, 또는 우랄알타이語族이요, 역사학에서 北方아세아民族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Turan文化의 첫 開花는 Sumer帝國이라 한다...

紀元前 3000년경이 메소포타미아地方을 침식하기 시작한 아프리카民族인 셈族에 의하여 Turan族은 그와 동화되거나 民族이동을 개시하여 印度로 시베리아로 원정의 길에 올랐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瞻星台가 9 : 40 : 41의 整数連比直角3角形에서 9 : 41 즉 人과 天의 比를 취한 것이 夏至의 日南中高度의 仰角의 tongent의 比라는 것을 本誌에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慶州의 緯度도 정확하게 이에 따른다. 다시 말하여 周易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天文學者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瞻星台는 周尺에 의하여 建立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中國의 唐代의 天文學은 orient의 學者들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瞻星台의 側面의 曲線 즉 黃道를 나타내는 것도 orient的이라고 筆者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Hellenism이 우리나라에 용이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 특히 Alexander大王의 侵攻은 印度의 Gandhara 藝術을 낳게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伝하여진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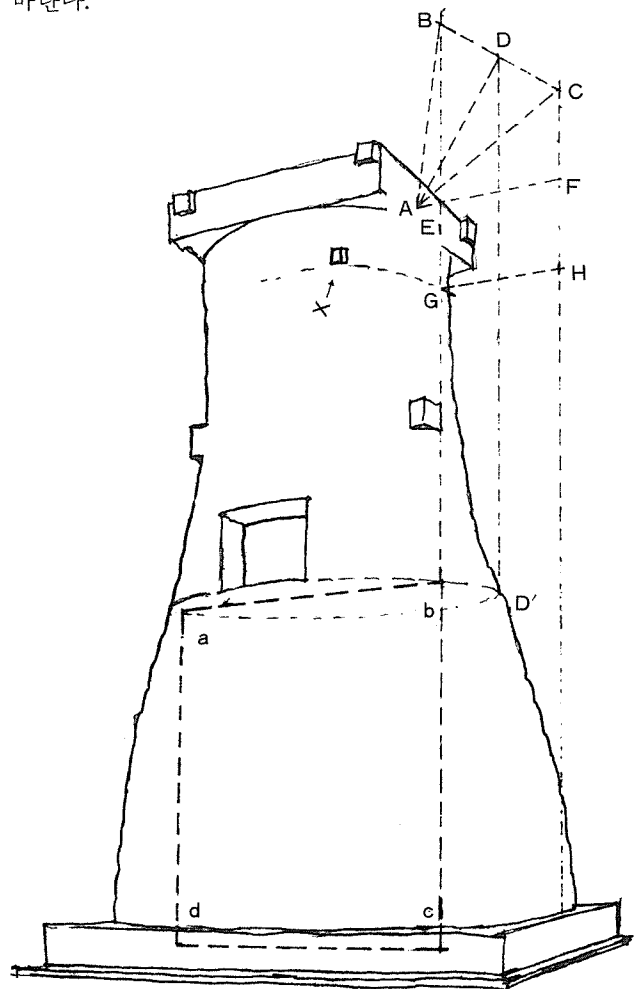
그뿐아니라 佛國寺의 極繫殿 南廻廊의 石築은, 石柱를 세우고 도리를 걸어 그사이에 다듬지 않은 돌을 쌓은 手法은 Greece의 그것과 같다.

원래 中國은 Greece의 古代數學을 월등이 앞선 것으로 數學者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幾何學에서는 뒤졌다고 한다

瞻星台를 考察할 때, 幾何學의 驅使는 참으로 놀라운 정도며, 造形의 精微함은 우리 民族의 자랑이다.

立面을 分析하였던 결과 4角形abcd는 中央 開口部下端의 直径을 1邊으로 하는 正4角形으로서 基壇 下端과 일치한 造形이기 때문에 完全한 均衡美를 갖은 것을 알았다. 동시에 a, b, 두 점은 黃道의 sine曲線의 中점이 된다.

筆者가 本誌에 發表한 글의 立面圖에서 確認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림 2)

또(그림 2)에서 X라고 표시된 것은 内部에 나타난 것인데 이들의 下端까지가 黃道의 sine曲線의 範圍를 나타낸다.

(그림 3)은 (그림 2)의 右上部에 그린 것을 옮긴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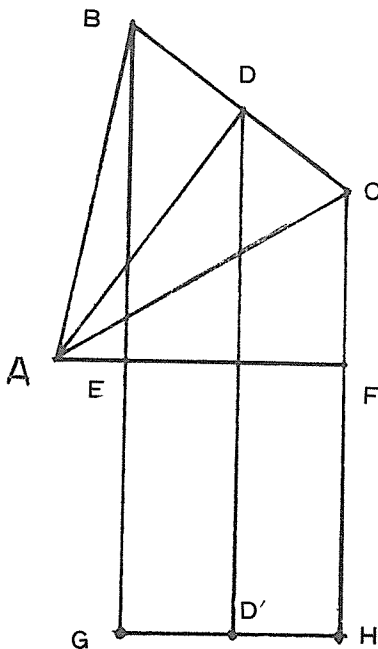
GH는 黃道 sine曲線의 振巾의 終端이다. AB, AD, AC는 각각 夏至, 春分, 冬至의 太陽의 日南中高度의 入射方向이다.

GH는 또 9 : 40 : 41의 9이고, EG는 11이다.

DD'는 GH의 中點D'를 지나는 平行線이므로 平行線과 交叉하는 餘하한 線도 그것을 2等分하기 때문에 BD = DC이다. D를 지나 BC에 重直인 線AD를 그으면 △ABC는 2等邊 3角形이 되고 $\angle DAB = \angle DAC = 23^{\circ} 27'$ 이 된다.

따라서 黃道 sine曲線의 座標를 BC線上에 投影하면 3角形ABC를 水平으로 移動시키므로서 座標를 重直에서 水平으로 轉換하는 것이 된다.

고로 BC線上에 나타난 座標가 每月의 座標가 投影되면 每月의 太陽의 日南中高度를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位置에 星座가 오는 것을 觀測하여 占을 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다음 △ABE에서 $BE : AE = 41 : 9$ 이다.

앞에서 말한바 9 : 40 : 41에서 人과 天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angle ABE = 12, 38^{\circ}$ 이다. 또 $\angle EBC = 66, 45 - 12, 38 = 54, 07^{\circ}$ 가 된다.

$BC = 9 \times \text{cosec} 54, 07 = 11, 11$ 이며 $EG = 11$ 과 比較할때 100분의 1의 誤差가 있다. 따라서 $EG = 11$ 이 基準이 되고, 觀測에 쓰일 △ABC를 構成할 때, BC의 檢尺의 役割을 하였으리라, 但 古代에서는 $23^{\circ} 27'$ 이 반듯이 찢겨 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天文学者들의 意見이다.

여하간에 特정적인 줄눈이라든가 모서리 등이 天文觀

測에 필요한 標識으로 나타나며, 더욱이 球面幾何學을 驅使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 發表할 段階은 아니다.

이렇듯 瞻星台는 天文台로서의 形態를 갖춘 것임에도 불구하고 天文台가 아니라고 主張하는 學者의 근거는 단 지 높은 位置에 建立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理內이다.

그러나 Babylonia의 Zigurat는 寺院인 동시에 天文台이고 規模가 작은 것부터 큰 것 또는 宮殿內에도 建設이 된 것을 우리들은 建築歷史에서 알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 洪範九疇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天文觀測이 얼마나 중요한 役割을 古代에서는 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 古代의 天文觀測은 支配者의 운명을 占치는 것이어서 王家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여 論理에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古典을 科學的인 考察方法에 의하여 그 內包된 意味를 찾을 때, 予期치 않은 새로운 局面이 展開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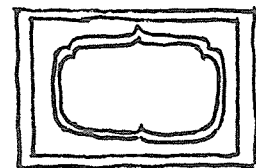
예를 들어 어떤 學者는 첨차端部의 장식적인 屈曲을 雙S形이라는 表現을 쓰고 있으나, 그것이 妥當한 定義인지 지 극히 疑問이다.

佛敎는 佛敎藝術과 함께 中央아세아를 거쳐 中國으로 또 우리나라로 傳來되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高僧도 中國으로 印度로 修道를 갔다.

우리나라로 돌아 올 때, 佛敎哲學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雙S形은 筆者는 이렇게 생각한다.

印度藝術의 根幹을 이루는 하나는 三屈法이다. 壁畫이건 彫刻이건 이것을 안따른 것이 없을 정도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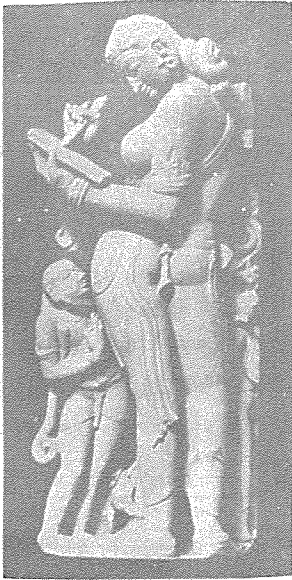
(그림 4) 三屈法을 따른 彫刻의 眼象

三屈法이라 함은 가령 彫刻일 경우 中央部를 固定하고 上體와 下體를 S字型으로 屈曲시키는 表現法을 말함이다.

이 三屈法이 眼象이요 첨차端部의 雙S字인 것이다.

즉 말하자면 個人이건 部族이건 그것이 靜的이 아니며 動的이고 마치 miniskirt가 全世界를 휩쓸듯이 文化는 묻어 오는 것이다.

한 예가 우리나라 高仙芝將軍이 中国의 唐나라의 將軍으로서 中央아세아를 征服하고 Saracen軍과 싸울 때 Sa-



(그림 4) 三屈法을 따른 彫刻의 技法

racen軍에 捕虜가 된 者중에 製紙工이 있어 製紙術이 유럽에 伝하여져 人類文化史의 一大變革을 일으키게 한 것도 軍隊라는 한 社會集團이 移動하여 가므로서 文化가 伝하여져 간 것이다.

中国도 마찬가지로 본다. 특히 唐代는 많은 外國의 文物을 받아들였다.

周易의 경우 八卦의 記号도 楔形文字에서 온 것이지 甲骨文字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싶지 않다.

楔形文字는 Akkad人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Assyria와 Babylonia人에 伝해진 것이다. 年代로는 紀元前 2000년이며 周의 年代를 1000년 앞선다.

筆者가 主張하는 바는 우리의 古建築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國內資料에만 依存하여 形式主義的 考察은 止揚되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方法에 있어서 科學的이라야 하고 視野를 넓혀서 global한 觀點에서 考察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의 傳統이 무엇이었든가를 밝히게 되고, 그를 繼承하게 되는 것이다.